

# “情報産業 天下之大本”

정 갑 석

(동우 컴테크(주) 대표이사)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도 특히 情報産業分野에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企業을 人體에 비유하면 컴퓨터는 「두뇌」, 통신 네트워크는 「신경 계통」, 정보는 「혈액」이라고 말할 수 있다. 企業經營에 있어서도 정보의 원활한 흐름은 필수조건이며 부문간의 정보교환을 긴밀하게 수행하는 「業務의 電算化」는 당연한 과제이고 全社의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은 시스템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산업사회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最初의 時期는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등의 생활의 기초가 농업중심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농업이 점하는 비중은 인구, 생산액등 많은 부문에서 감소화되는 경향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으나 美國에서는 人口의 7% 정도

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점차 기계화가 진행되어 大規模化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우리 한국에서도 人口의 1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인이나 부녀자 층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어 「農者天下之大本」도 變形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의 時期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서 농업의 지위를 능가하게 되어 「工者天下之大本」 또는 「勞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점점 발전하여 3次産業化되어 서비스산업으로써 情報産業化에 따른 생산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奉者天下之大本」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고 있다.

農業(農者), 工業(工者), 서비스業(奉者) 모두 어떤産業(企業)으로써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企業에서는 채산성 중심, 이익추구시점에서 보면 농업, 공업, 서비스업도 企業으로서 存續되어야 하며 天下之大本도 바로 「企業天下之大本」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天下之大本을 기업에 둔다고 생각하면 기업에서는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人間이 중심이 되어 기업을 운영하므로 「企業天下之大本」이 아니고 「人間天下之大本」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春秋戰國時代에 “孔子”의 유명한 말씀으로 「君君臣臣父

父子子」라는 말이 있다. 그 의미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眞理는 세월이 흘렀지만 社會生活의 根本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의 직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業務나 주어진 職務에 充實하게 임하면서 다가오는 情報化社會에 대비하여 「情報産業天下之大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정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